

2016.10.29.(토)

한국의교사연구회 발제

노가연

구대열 (2010), 장수왕의 외교정책: 고구려 “자주외교”의 두 얼굴

1. 서론

고구려의 “자주적 외교”의 양면성

- ‘당당한 자주적 모습’과 ‘생존을 위한 굴복/타협’이 공존
- ‘외교군주(diplomat king)’로서의 장수왕 (*394~491 AD, 재위기간 413~491 AD)

광개토왕,연개소문,김춘추 등에 비해 장수왕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/평가가 부족한 이유

-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
- 역사학적 연구의 문제점: 1) 국제정치학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문제; 2)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약하며 반복성이 강함 - 동서양의 유사사례들과 비교 평가 필요

본 연구의 사료: <<삼국사기>>, <<중국25사 - 조선전>>, <<중국정사 - 조선전>>

- <<삼국사기>> 사례: “중화적” “사대적”이라는 표현을 벗기고 저자의 핵심을 ‘전문적 관점에서’ 설명할 필요

국제제도(international institution)이자 국제체제(international system)의 구성요소로서의 조공체제

- 유교적 규범으로 포장되었으나 힘의 관계가 내재(the immanence of power)
- 장수왕 시기는 중-한관계가 형식적으로 정형화되기 이전 → 힘의 관계가 곧바로 반영

2. 장수왕 이전 고구려의 대외관계

광개토왕 전까지의 시기 (~391A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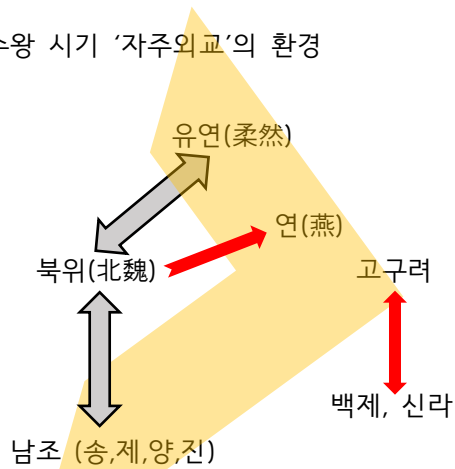
- 중국은 전한,후한(~220AD) 이후 삼국시대 (221~280), 위진남북조 (265~419), 5호16국 (316~439) 등 분열과 혼란의 시대
- 고구려는 지역적 강자였지만 중국과의 충돌에서는 약자의 입장 - 중원 패자 뿐 아니라 하북 지역 제후국에도 신하의 예로 → 저항-회유-항복-현상복귀 패턴 반복
- 3대 대무신왕 (28 AD) - 한의 침략: 고구려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preventive war → 고구려는 방어전으로 전력 과시 + ‘상국에 죄를 지어’ 사죄하는 뜻을 전달
- 11대 동천왕 (246)
- 16대 고국원왕 (339)

광개토왕 시기 (392~413AD)

- 현상유지!
- 1) 하북 제후국들의 지위 2) 고구려의 서방 진출 거둬 좌절
- → 아들 장수왕이 남방경략에 집중하게 된 계기
- → 장수왕 시대의 의미: 고구려는 어떻게 이로부터 100여 년 뒤 수/당에 당당히 맞서는 강국이 되었나

3. 장수왕의 대외정책

장수왕 시기 '자주외교'의 환경



국제체제의 양 축: 북위vs남조, 북위vs유연

- '국제체제는 일단 확립되면 체제의 속성상 문제점을 스스로 수정/변용하면서 장기간 지속하는 생명력을 갖는다' - 북위가 바로 통일을 못 이루고 현상유지, 국제체제로 굳어짐
- 유연-남조: 반(反) 북위 전선 형성, 고구려 등 주변국 가담
- 북위: 주변국 지속적 회유 및 압박
- 연: 고구려-북위 사이에서 완충지대(buffer zone)
- 고구려 등 주변국: 1) 자기 독립주권 유지가 최우선 2) 사실상 남조와 연합/동맹 하기에는 어려움
- 1) 장수왕 초기: 427-434 평양천도, 남진정책 추진, 433 나제동맹 체결, 고구려의 상국 행세 종식
- 2) 위-연전쟁 (430년대 초중반): 고구려 중립요구 거절, 제3자로서 개입 - 연왕의 망명 요청
- 3) 망명한 연왕 풍흥의 처리문제 (430년대 후반): 풍흥의 신변 통제, 송 망명 시도 - 북위에 반하여 송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풍흥 살해, 송과 화해
- 4) '말 800필' (439) → 사실 여부?
- 5) 연 멸망 후 유연-남송 연합, 위-송-유연 체제 (440-455): 고구려 inaction, 내부 정치 문제
- 6) 중국에 조공 재개 (455): 북위의 왕녀 요구 - 외교적 탐색(diplomatic feeler)
- 7) 지두우 분할 문제 (479)
- 8)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 고구려 침공 요청, 거부 당함, 고구려의 보복 (472) - 개로왕이 북방 정세 입지 못한 결과

4. 후기 및 결론

장수왕 시대의 對중국 관계는 조공체제 + 힘의 관계 반영

- 약한 중국왕조들과 의례적 위계질서 유지
- 가장 조공사절을 많이 보낸 왕: 조공을 국제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
- 고구려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운용하며 정세에 맞추어 동맹관계를 수시로 변화 -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에 비견 - "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외교관 군주(diplomat king)"

그림자

- 1) 남진정책 - 삼국통일 의지를 보이지 않음
- 2) 평양천도 - 만주 장악력 약화, 전략 거점인 요동에서 멀어짐